

■ 이민자 폭동 5년 프랑스는 지금

인권대국 옛말... 다문화 화약고

잇단 소요사태 골머리... 한국사회 반면교사 삼아야

파리=최경호 기자

“틀레랑스(Tolerance·관용)의 나라 프랑스지만 이주민들이 밀집한 ‘방리유’(Banlieue·대도시 외곽 지역)에는 ‘틀레랑스’ 정신이 없다.”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외곽도시인 ‘클리시 수 부아’(Clichy-sous-Bois) 시(市)에서 만난 시야카(Siyakha·21·가명)씨. 그는 5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소요 사태를 떠올리며 침뚫힌 표정을 지었다. <다문화 2세 시리즈 5면> 시야카씨는 “상난 젊은이들과 경찰과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날마다 차량이 불에 타고 시위대가 체포되는 등 도시가 온통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프랑스 정부가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는 외곽도시의 이주민에게도 ‘틀레랑스’ 정신을 보여줬다면 5년 전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곳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 27일부터 한 달여간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참혹한 시위가 벌어졌다. 아랍계 청년 2명의 사망으로 촉발된 당시 시위로 전국의 차량 1만여대와 건물 300여채가 불타고, 3000여



지난 10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외곽도시인 ‘클리시 수 부아’의 로베르 드와즈노 중학교 앞에서 열린 ‘지이드와 부나’ 사망 5주기 추모식. 두 청년의 사망은 2005년 프랑스 전역을 방화와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방리유’(Banlieue) 소요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명이 체포됐다.

당시 중학생이던 지이드 벤나(Zyed Benna·17)군과 부나 트라오레(Bouna Traore·15)군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프랑스 전력공사’(EDF) 송전소의 변압기에 추락해 감전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전국 274개의 ‘방리유’에 사는 청년들은 그간의 차별대우에 분노하며 화염병과 돌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후 한

달여간 프랑스 전역은 방리유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방화와 폭력으로 얼룩졌다.

이 사건은 프랑스의 통합적 이민정책의 실패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파리 등 대도시 외곽도시에 사는 이주민들에 대한 오랜 편견과 경제적 빈곤이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 형태로 폭발했기 때문이다.

이후로도 프랑스는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종차별과 만성적인 실업 문제 등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7일에도 프랑스 남동부의 도시 ‘그르노블’(Grenoble) 교외 빈민가에서 소요가 발생했다. 이날 소요는 ‘그르노블’ 교외의 카지노를 강탈한 혐의를 받은 20대 청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

앞서 2007년에도 파리 북부의 ‘빌리에 르 벨’(Villiers-Le-Bel)에서 청소년 2명이 경찰 순찰차에 치여 숨지자 상난 폭도들이 100여대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 80

여명이 다치기도 했다. ‘틀레랑스의 나라’, ‘이민자의 천국’으로 통하는 프랑스가 이민정책의 한계에 부딪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오랜 이민 역사를 갖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19세기 말에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설 만큼 활발한 이민 유입정책을 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곳에 밀집한 이주민들에 대한 ‘동화’(assimilation) 정책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또 사회적 혼란으로 직결되는 한편,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 선진지”로 꼽히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도 이주자나 다문화정책의 격변기마다 크고 작은 시위나 반발에 부딪혀 왔다.

한국은 이미 거주 외국인 수가 140만명에 달한다. 이같은 다문화 선진지들의 ‘시행착오’는 더이상 한국 사회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choice@kwangju.co.kr

시위장된 전남도의회 초유 사태

농민·교육단체 반발 물리적 충돌 속 예산안 통과 박지사 피켓에 부딪치고 의장 본회의장 입장 막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농민·교육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됐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도민의 대의기구인 전남도의회에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으려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져 휴유증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15일 제 25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5조2344억원 규모의 내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표결 끝에 참석의원 57명 중 찬성 32명, 반대 9명, 기권 1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유권주(비례·민노)의원 11명, F1대회 예산 435억을 삭감하는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8명의 의원이 찬성했다”면서 요구해 이뤄졌다. 도의회는 F1 조직위원회 출연금 100억원 등 202억원원을 삭감하고

86억2000만원원 증액, 총 115억8000여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도의회는 또 내년도 전남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안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학교를 미래형특성화 중·고교로 전환하는 사업비 등 275억원과 도교육청 관용차량 대체비용(1190만원) 등 총 431억7000만원이 삭감된 총 2조5363억원 규모다. 도의회는 이 과정에서 읍·면 유치원을 비롯, 동지역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15억4800만원을 증액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농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들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본회의장 주변에서 관련 예산 삭감에 반발, 피켓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농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면서 경찰·공무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농민단체 회원이 들고 있던 피켓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 의장은 결국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송대수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농민·교육단체들은 “전남도가 농도리면서 농업예산 1000억원이나 삭감하고 자체 사업도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육혁신 예산이 모두 깎였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국비가 물리고 농민들을 위한 전남도 사업은 줄어들면서 향후 몇 년간 적자가 불가피한 F1 대회에 많은 지방비가 투입된데 따른 불만이 폭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농민·교육단체의 점거·시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름다운 일들 중단돼선 안된다”... 나눔 바이러스 확산

배우 이해영도 10억 사업체 지분 기부



배우 이해영이 자신이 론칭한 패션 브랜드 ‘미싱도로서’를 떠나면서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상당의 지분을 기부하기로

해 감동을 주고 있다. 이해영의 소속사 측은 15일 “최근 이해영이 미싱도로서와 협의 하에,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고 2대 주주로서 디자인 총괄 이사 직책을 맡으며 보유하고 있던 10억원 상당의 지분은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론칭한 패션 브랜드 ‘미싱도로서’는 2004년 케이블체널 홈쇼핑에 진출해 매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해왔고 8년간 연연인 패션 브랜드 매출 1위를 지켜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익명의 80대, 2000만원 전북공동모금회에

익명을 요구한 80대 노인사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15일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전주시 경원동 공동모금회 사무실에 양복 차림의 한 노인이 찾아와 1000만원권 수표 2장을 내밀었다.

이 노인은 “몇몇 직원의 관수로 그동안 사랑의 열매가 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중단되서는 안된다며 “더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는 말을 남기고 5분 만에 사무실을 떠났다.

이 노인은 2004년 12월에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2000만원을 기탁했고, 작년에도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모금회 측은 전했다. 모금회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신지에 등 1억3400만원 미소금융재단에



신지에(22·미래예셋), 김인경(22), 박희영(23·이상 하나금융) 등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골퍼들이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인 미소금융재단에 1억3400여만원을 기부했다.

신지에 등 선수들과 하나금융그룹 임원들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 중앙재단 회의실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모든 성금을 전달했다.

신지에에는 2000만원을 기부했고, 최경주재단은 1000만원을, 하나는 행 캠페인실에 참가했던 플라 크리머(미국),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등 외국인 선수들도 6000달러를 내놓았다. /연합뉴스

즐거움 크리스마스
12월이 환인으로 풍성해집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4가지 상품
객실+조식(2인)+미니케이크 증정 ₩100,000
안심스테이(2인)+외인서비스 ₩55,000
연회장·월선민·동선지·각종세미나·세미나까지! 숙련관중
발안기간: 2010. 12. 24~2011. 01. 02 사전예약 필수!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227-8500 | www.hi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식 모집 12월 17일~22일
대교원 원서접수 12월 1일~7일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악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시인을 꿈꾸는 제2의 피아니스트 이노경(국어국문학과)

영화감독을 꿈꾸는 한의사 최현민(미디어영상학과)

내 꿈에 하나 더!

다양한 강의방법 (TV, 멀티미디어, 출석수업 등)
등록금이 저렴하다 (일반대학 1/10, 사이버대학 1/5)
연계전공 운영으로 “사회복지학사” 취득
내 꿈을 더하고 키우는 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 꿈에 하나 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자: 2010. 12. 1(수) ~ 2011. 1. 12(수)
입학상담 | 광주전남지역대학 062)973-510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nou.ac.kr) 참조